



태평양동맹, 중남미지역의 새로운 경제블록으로 부상

유영식

중남미지역의 경제 질서가 브라질 주도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이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부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역내에 중미공동시장(CACM), 안데스공동체(CAN),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등 경제협력체가 있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에 견줄만한 파워와 결속력을 가진 경제블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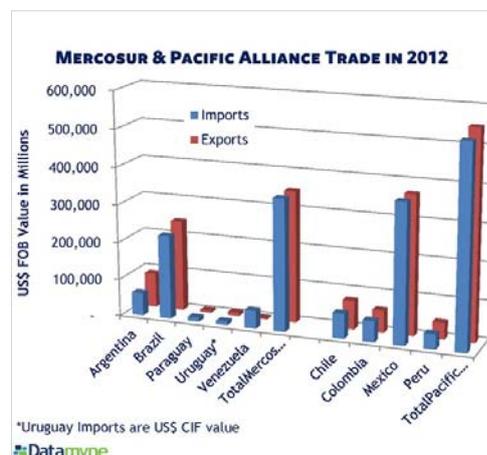
2006년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의 FTA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비난하면서 안데스공동체 탈퇴를 공식화한 후,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동반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안데스공동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그런 가운데 2008년 3월 콜롬비아 Uribe 대통령 정부가 에콰도르 접경지역인 앙고스투라에 캠프를 두고 활동하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라울 레예스 일당 제거를 위해 에콰도르 국경 마을을 공습하면서 에콰도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사태까지 이르는 등 안데스공동체의 미래가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나 에콰도르 국경 공습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계도 대사급으로 격상되어 정상화되었으며, 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안데스공동체 회원국 간의 관계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1995년 1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역내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로서 위상을 견지해왔다. 남미공동시장 정상들은, 파라과이 좌파 대통령 루고 탄핵 사건을 계기로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 자격정지 상태에서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면서 회원국이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남미공동시장은 인구 2억7천900만 명, GDP 합계는 중남미 전체의 약 58%인 3조3천억 달러의 중남미 최대 시장이다.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동맹의 부상으로 위협받는 이유가 남미공동시장이 경제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공동체로 변모했으며, 좌파성향의 정권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중남미에서 자유무역화 기조를 추구하는 태평양동맹은 2011년 4월 2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차 정상회의 시 페루 대통령이 제안하여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 간 상품·서비스·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통합 심화 및 성장·개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리마선언을 기초로 하여 출범하였다. 제2차 정상회의가 멕시코 메리다에서 개최되어 태평양연안 4개국 간 환경, 기후변화, 과학기술혁신 등 협력 기반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 무역규모 비교(2012)



2013년 5월 개최된 제7차 태평양동맹 4개국 정상회의(왼쪽부터 멕시코 엔리케 페냐 니에토,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산토스, 칠레 세바스티안 피네라, 페루 오안타 우말라)

에 관한 양해각서가 서명되었다. 2012년 6월 칠레 파라날에서 개최된 제 4차 정상회의에서는 태평양동맹의 기본협정문이 서명되어 정식 발효를 위한 회원국내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5월 23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제7차 태평양동맹 4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6월 30일까지 역내 상품교역의 90%까지 무관세 발효 및 점진적 완전 자유화 도달 △‘태평양동맹 비자’로 명명한 4개국 단일 비자 발급 △부패와 탈세와의 전쟁 선포 △통관 및 검역절차 간소화 △6월 30일까지 금융, 통신, 항공, 해상운송 서비스 촉진 및 투자보장을 위한 협상 완결 △중소기업 육성 비즈니스 메카니즘 창설 및 6월 19일 콜롬비아에서 4개국 중소기업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 △1백만불 규모의 불평등해소기금 설치 △가나 및 싱가포르에 4개국 합동 대사관을 설치하고 향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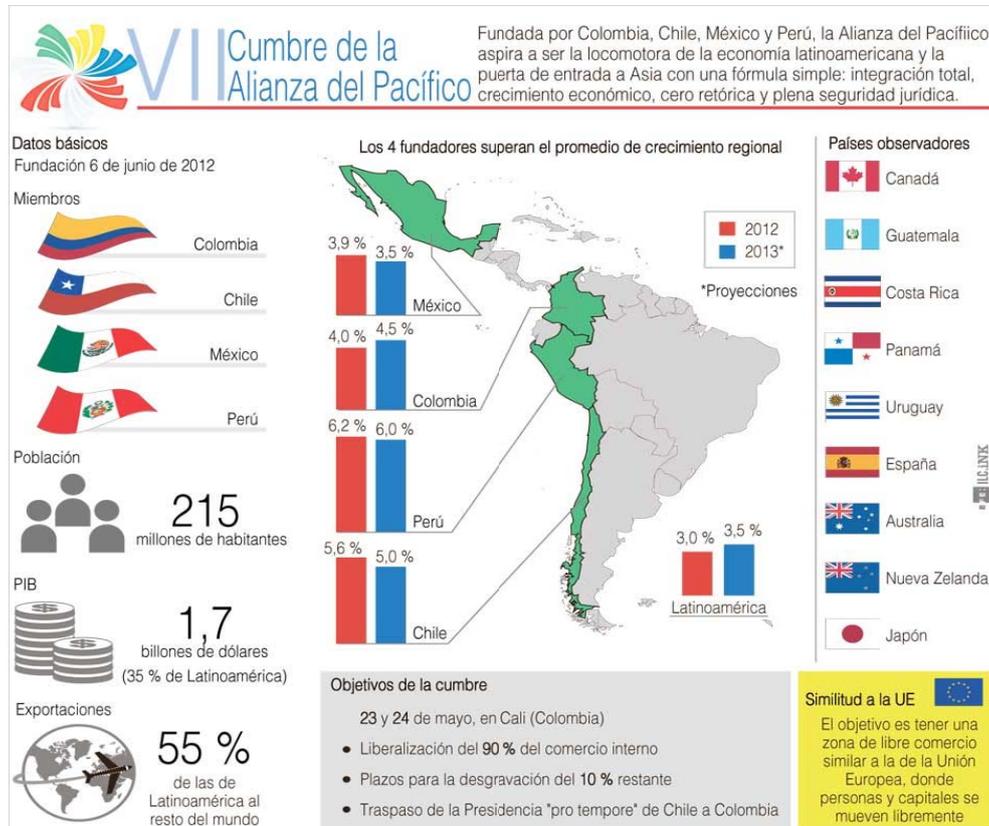
태평양동맹 4개국의 인구는 2억1천500만 명, GDP 합계는 중남미 전체 35%인 약 1조7천억 달러의 시장으로써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거대시장들에 이어 세계 8위 규모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무역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태평양동맹은 ASEAN(GDP2조불)에 필적하는 중

남미 태평양 연안국 최대 경제통합체로서 브라질 주도 남미국가연합 (UNASUR), 남미공동시장 간에 역내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1년 페루의 태평양동맹 창설 제안 이래, 이념을 떠나 실용적인 경제 통합을 추구하며 기존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합 시도 및 아시아·중남미 태평양 연안 간 협력강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최된 칼리 제8차 정상회의 의장국 콜롬비아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은 기초연설에서 태평양동맹은 중남미와 카리브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맹은 태평양과 중남미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회원국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결정이 내려진 역사적인 정상회의라고 평가하고, 태평양동맹은 순풍을 받아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결과를 목도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 및 국민들을 위한 고용확대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칠레 피네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이 창설된 지 2년 반 만에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의 동맹 회원국 또는 옵서버 가입을 목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통합과정이 지역 내 최초는 아니나 4개 창설 회원국의 2억천만 명 국민들에게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평가하였다. 페루 우말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의 추진 과업의 하나는 중남미의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메카니즘 모색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동맹 회원국들이 법치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며 자유무역이 우리 국민들에게 최대의 경쟁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단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태평양동맹은 창설 당시 회원국 간 FTA가 기 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옵서버로 가입했던 코스타리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콜롬비아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회원국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태평양동맹 각종 지수(2012년 6월 기준)

서 태평양동맹 가입이 승인되었다. 동맹국 정상들은 코스타리카의 회원국 가입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차기회의에서 이를 위한 작업반 창설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계기로 코스타리카 친치야 대통령은 동맹이란 이념의 가치를 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합의 공고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옵서버 국가인 파나마는 칼리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을 계기로 멕시코와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회원국 가입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과테말라도 정회원국 가입의사를 밝혔다. 태평양동맹은 캐나다, 호주, 스페인, 뉴질랜드, 우루과이, 일본 등 9개 옵서버 국가 외에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포르투갈, 프랑스,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신규 옵서버 가입을 희망하는 국

가들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어 옵서버 국가는 총 16개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콜롬비아를 방문 중인 미국 바이든 부통령은 중남미지역의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옵서버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태평양동맹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중남미지역 국가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옵서버 국가로 자격을 얻고 있으며 프랑스, 포르투갈도 옵서버 가입 신청을 하는 등 역외국가의 태평양동맹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유일하게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이번 칼리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와카야마시 외무차관을 비롯한 40명의 대표단을 전략적으로 콜롬비아에 파견하여 양자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중남미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할 태평양동맹에 주목하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태평양동맹과 일할 준비가 되었다. 동맹의 정회원국으로 참여할지도 여부도 현재 고려중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태평양동맹은 자유무역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중남미지역 경제통합체로서 향후 회원국 간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교역 경제협력 수단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확대와 연계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전문 언론도 태평양동맹의 부상이 중국과 중남미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유력일간 플라데상파울루 지는 중남미에서 태평양동맹이 새로운 지역경제공동체로 등장하면서 남미공동시장과 대립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으나, 브라질 정부는 태평양동맹 출범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남미공동시장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있다.

태평양동맹이 브라질 주도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항하는 경제통합기구로서 부상하며 남미공동시장을 바탕으로 남미국가연합(UNASUR)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던 브라질의 노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태평양동맹과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남미공동시장간 통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자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고 있는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은 양 경제블록 간의 대화를 확대하여 양분된 중남미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 블록 간 가교로서 우루과이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콜롬비아는 이번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를 계기로 5월 중 동맹 창설협정안의 국회 비준을 마치고 정상회의 직전 5월22일 산토스 대통령이 법령에 서명·공표하였으며, 칠레 상원 외교위원회도 5월22일 동 협정 안을 비준하여 본회의 비준만을 남겨둔 바, 칠레 및 페루의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동맹 창설협정의 금년 내 정식 발효(멕시코는 동 협정 안을 기 비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영식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교양기초교육원 교수